2024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선정 공연 소개 자료

[클 래 식]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르경영지원센터

클래식 1 서울오페라앙상블 : 모차르트 걸작오페라 〈돈 조반니〉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서울오페라앙상블		
공연명	모차르트 걸작오페라 <돈 조반니>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www.seoulopera.org
실무자명	백남익	E-mail	vivaopera@naver.com
		연락처	(02) 741-7389
단체소개	**서울오페라앙상블** **'우리의 얼굴을 한 한국오페라의 세계화'** 서울오페라앙상블은 1994년 5월, '오페라의 전문화'를 목표로 창단되어 지난 30년간 꾸준히 신작 오페라를 중심으로 공연해온 오페라 공연전문단체이다.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를 비롯하여 <달에 홀린 삐에로> 등 수 편의 한국초연과 <백범김구>를 비롯하여 <운영>,<붉은 자화상> 등의 창작오페라 수 편을 초연하였으며 <서울*라보엠>,<도시의 삐에로>,<섬진강나루> 등의 번안오페라를 통해 '오페라의 다양성'을 추구해 왔다. 그 밖에 광복40주년기념오페라 <안중근>, 월드컵야외오페라 <투란도트>, 정명훈 지휘의 야외오페라 <라보엠> 등 수십 편의 협력단체로 '현장 중심의 오페라작업'을 줄곧 펼쳐왔다. 2007년에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오페라 <돈조반니>의 전국순회공연으로 모차르트 붐을 일으켰고 2010년에는 아시아 버전의 <리골레토> 공연(북경국제음악제 초청) 으로 '한류 오페라' 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5밀라노세계엑스포 초청으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1999년 출범한 한국소극장오페라페스티벌을 통해 20여년간 소극장오페라 운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2017-2018시즌에는 창작오페라 <붉은 자화상>, 윤이상탄생 100주년기념오페라 <나비의 꿈>, 2018 러시아월드컵기념오페라<라트라비아타>를 러시아에서 공연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9-2020시즌에는 음악극 <굿모닝 독도> 오페라 <개구쟁이와 마법>, <토스카>, <카르멘>을 공연하였다. 2021년에는 환경오페라 <빛아이 어둠아이>를 공연하였으며 2022년에는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장총>과 오페라 <리골레토(아시아판)>, 창작오페라 <나비의 꿈> 공연 후 창작오페라 <취화선>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공연하였고 2023년에는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선정작 오페라 <돈조반니>를 공연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선정작 창작오페라 <취화선>과 <붉은 자화상> 공연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서울오페라앙상블은 예술감독인 연출가 장수동을 중심으로 **'우리의 얼굴을 한 한국오페라의 세계화'**를 위해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오페라 공연전문단체이다.		
공연 가능기간	☑ 8월(전월) ☑ 9월(전월) ☑ 10월(전월) ☑ 11월(전월) ☑ 12월(전월)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4">내 용</th></tr>
<tr><td>공연실적</td><td colspan="4"><신청 공연 실적>
ㅇ 2023. 12. 7 제16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대상 수상
ㅇ 2023. 6. 2~4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선정 공연(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ㅇ 2021. 7. 23~24 구로문화재단 구로아트밸리 공연
ㅇ 2021. 6. 27 원주 치악예술관 공연
ㅇ 2019. 6. 28~29 구로문화재단 구로아트밸리 공연

<단체 실적>
1. 2023.12.07. 제16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대상 <돈 조반니> 수상
2. 2023.06.02.~04.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돈 조반니> 공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3. 2021.07.23.~24. 구로문화재단 <돈 조반니> 공연(구로아트밸리)
4. 2021.06.27. 방방곡곡문화공감 <돈 조반니> 공연(원주 치악예술관) 외
5. 2023.11.24.~25. 창작오페라 <붉은 자화상> 공연(강동아트센터)
6. 2023.10.20.~21. 창작오페라 <취화선> 공연(마포아트센터
7. 2022.09.06.~07. 창작오페라 <나비의 꿈> 공연(구로아트밸리)
8. 2021.10.22.~23. 가족환경오페라 <빛아이 어둠아이> 공연(구로아트밸리)</td></tr>
<tr><td>공연영상</td><td colspan="4">https://youtu.be/lAfOvXB9nrk?si=GYTxskZi6rM6JK9p</td></tr>
<tr><td>참여인원</td><td colspan="4">총 69명 (출연진 51명 / 스태프 18명)</td></tr>
<tr><td>소요시간</td><td>총 12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td><td>주관객층</td><td colspan="2">일반 시민 및 학생</td></tr>
<tr><td rowspan="2">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td><td>객석규모</td><td colspan="2">무대면적</td><td>무대시설</td></tr>
<tr><td>☑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td><td colspan="2">무대너비(14m)×
높이(6m)×깊이(10m)</td><td>장치걸이(3조),
조명바텐(4조),
덧마루(3*6 12장, 3*9 9장)</td></tr>
<tr><td>기타 사항</td><td colspan="4">공연 전 셋업 및 리허설 기간 2일 필요</td></tr>
<tr><td>기획 및 제작의도</td><td colspan="4">모차르트 선율이 선사하는 감동의 걸작오페라 <돈 조반니> -
바로크 스타일의 오리지널 음악에 충실하면서 아시아 한 가상의 항구도시 K에서 벌어지는 권력을 쥔 자와 그 권력에 노출된 자들과의 갑을관계 속에서의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로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심성의 근원을 파헤치는 오페라로 기획된 작품이다.

특히 영상적 미장센에 역점을 두고 제작하여 오페라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관객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와의 교감을 꾀하는 공연을 하고자 한다.</td></tr>
<tr><td>컨셉 및 주제</td><td colspan="4">청춘과 격정 그리고 불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영상과 결합한 현대적 해석의 공연 -
오페라 <돈 조반니>는 모차르트의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과 인간성이 가장 극명하게 투영된 작품이다. 다양한 인간심리를 드러낸 드라마틱한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 주목하여, 동시대에 걸맞게 영상적 수법의 현대적 해석의 작품으로 공연한다.

특히, 관객의 입장에서 어렵게 느끼던 레치타티보 부분을 시대에 맞게 연극적 대사로 처리하여 관객과의 친밀감을 높였으며 무대를 17C 스페인의 세비야가 아닌, 21C 아시아권의 항구도시로 설정하여 '동시대적 모차르트 오페라'를 구현하고자 한다.</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내용 및 특징</td><td>
- 공연 내용 및 특징
모차르트 오페라의 원전 음악를 살리면서 동시대적 언어로서 새로운 무대연출-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뛰어넘는 최고의 음악적 전율'이라는 차이코프스키의 고백처럼, 모차르트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에 못지않게 등장인물들의 심리묘사가 탁월한 오페라 <돈 조반니>는 다양한 해석의 연출이 가능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 살아 숨쉬는 동시대적 캐릭터를 부여한 등장인물들의 등장시켜 모차르트의 음악언어를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야기로 변용하고자 한다.
무대를 가상의 항구의 재개발구역의 뒷골목을 연상시키는 혼합적 이미지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돈조반니는 그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보스로, 그의 부하 레포렐로와는 현대판 갑을관계를 표현한다.
오리지널 대본의 시대상은 극적 설정을 '낭만적'으로 용납하였으나 적어도 오늘의 사회적 시각에서의 도덕성과는 충돌하고 있는 오페라가 바로 <돈 조반니>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현대적 해석으로 돈 조반니의 성적 욕망을 '남성적 폭력'의 상징으로 연출하여 '비도덕적이고 추악한 폭력'이 곧 절대 권력에서 비롯된 산물임을 메타포 하고자 한다.

- 공연 수정 계획
다폰테의 대본과 모차르트 음악의 고유성은 간직하되 빠른 템포의 무대 전개, 유머 넘치는 선율의 디테일한 표현 그리고 시대적 상황변화를 무대화하여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심리묘사에 포인트를 둔 새로운 무대연출을 선보이고자 한다. 또한 돈나 안나와 돈나 엘비라 그리고 체를리나라는 세 여성을 돈조반니가 품고 있는 여성상(어머니, 아내, 길거리여자)의 현대적 상징으로 묘사하고 투박한 부두노동자인 마제토의 순박한 삶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여 시공을 뛰어넘어 동시대적 언어로서의 모차르트 오페라를 연출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차르트 오페라의 격조도 갖추면서 매혹적 선율의 '낭만성'과 오늘에 비춰 본 '현대성'이 공존하는 무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무대와 객석의 적극적 소통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경쾌한 무대구성과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투르그,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차용 등의 현대적인 무대로 오페라 <돈 조반니>가 동시대의 오페라로 거듭나게 하여 '한국오페라의 다양성'을 선보이고자 한다.

- 무대디자인 예시(참고용)
<table>
<tr><td> </td><td> </td></tr>
<tr><td>무대디자인이미지 1.</td><td>무대디자인이미지 2.</td></tr>
<tr><td> </td><td> </td></tr>
<tr><td>무대디자인이미지 3.</td><td>무대디자인이미지 4.</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td><td>

- **공연사진(참고용)**

<table>
<tr><td> </td><td> </td></tr>
<tr><td>공연사진 1.</td><td>공연사진 2.</td></tr>
<tr><td> </td><td> </td></tr>
<tr><td>공연사진 3.</td><td>공연사진 4.</td></tr>
</table>

- **시놉시스**

전통과 IT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아시아의 한 가상의 항구도시 K.

가상화폐와 무기밀매로 부를 축척한 돈 조반니와 그의 부하 레포렐로가
부두의 콘테이너 박스들 사이에서 뛰쳐나온다.
항만책임자인 코멘다토레의 딸인 안나를 유혹하다가 발각된 것이다.
그 와중에 코멘다토레를 우연히 죽이고 도망치게 되고 코멘다토레의 부하이자 안나의 연인인 옥타비오가 그녀를 위로하며 복수를 다짐한다.

부두노동자인 마제토와 체를리나의 결혼식장.
돈 조반니가 나타나 체를리나를 유혹하며 그들의 결혼식을 방해한다.
그 순간, 돈 조반니에게 과거에 버림받았던 엘비라가 나타나 그의 애정 행적을 낱낱이 고하며 체를리나를 구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조반니의 악행은 계속되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시 외곽의 공동묘지에 나타난 돈 조반니 앞에 묘지 석상이 움직이며
그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경고하자 돈 조반니는 그를 빌딩 밀실의 '가면무도회'에 초대한다.
돈 조반니와 밀매업자들이 벌이는 파티가 고조되자, 석상(코멘다토레)이 화염을 일으키며 나타나 돈 조반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시대의 타락자는 지옥의 나락으로!'를 합창단이 부르는 가운데
서서히 기요틴 앞으로 다가서는 돈 조반니.....

</td></tr>
<tr><td>기대효과</td><td>

타임지로부터 '20세기 최고의 오페라'로 선정될 만큼 오페라 <돈 조반니>는
본 단체의 2023년 대한민국오페라대상 대상작으로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예술성과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대중성을 고루 겸비한 모차르트의 걸작오페라이다.

이러한 '모차르트 이펙트'를 '문예회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연결시켜서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극단체 및 무용단과도 연대하여 지역공연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공연함으로써 '오페라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오페라와의 소통으로 '지역문화 다양성'에도 도움이 되는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td></tr>
</table>

클래식 2 사단법인 라벨라오페라단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라 보엠'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사단법인 라벨라오페라단		
공연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라 보엠'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labellaopera.com/
실무자명	이효재	E-mail	labella91@daum.net
		연락처	(02)-572-6773
단체소개	'감동이 있는 공연, 믿고 보는 라벨라오페라단' 사단법인 라벨라 오페라단은 2007년 5월 1일 창단한 순수 민간 오페라단체로 "감동이 있는 공연"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언제나 예술성을 최고의 가치로 오페라의 보편화와 대중화를 통해 관객과 함께 명품오페라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오페라의 자존심과 실력으로 세계 오페라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 라벨라 성악 콩쿠르, 라벨라오페라스튜디오 등 오페라와 클래식 문화전반에 관한 사회공헌 사업과 문화 창조사업을 비롯하여 관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클래식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믿고 보는 오페라 공연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라벨라 오페라단은 자체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문화 사업을 구상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본질을 지켜 나가는 유일의 오페라단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공연 가능기간	☑ 8월(1~5주) ☑ 9월(1~2주) ☑ 10월(3~4주) ☑ 11월(1~5주) ☑ 12월(1~5주)		
공연실적	**<신청 공연실적>** ㅇ 2014.11.21.~11.23.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라 보엠 **<단체 공연실적>** 1. 2021.05.09. LG아트센터 <오페라 하이라이트 콘서트I> 2. 2021.05.29.-3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페라 안나 볼레나> 3.. 2021.07.31.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페라 하이라이트 콘서트II> 4. 2021.08.27.~09.05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푸푸아일랜드> 5. 2021.09.25.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푸푸아일랜드> 6. 2022.07.11.-13 롯데콘서트홀 <라벨라 그랜드 갈라 콘서트> 7. 2022.09.03. 거례리 사랑나무, PLZ페스티벌 화천 야외오페라 <토스카> 8. 2022.11.19. 20. 꿈의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 <푸푸게노! 똥 밟았네?> 9. 2023.04.04. 2023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문화부문 대상 수상 10..2023.05.26.~05.28.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로베르토 데브뢰> 11. 2023.07.13.~15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푸푸게노! 똥 밟았네?> 12. 2023.07.21. 은평구문화예술회관,<푸푸게노! 똥 밟았네?> 13. 2023.11.02.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23 라벨라 그랜드 갈라 콘서트>		
공연영상	ㅇ오페라 <라 보엠> https://youtu.be/BzQqTGSiAxU?feature=shared (1부) https://youtu.be/Bepu86jmWf8?feature=shared (2부)		
참여인원	총 143명 (출연진 113명 / 스태프 30명)		
소요시간	총 150분 (인터미션 20분 포함)	주관객층	20~50대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r>
<tr><td rowspan="2">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td><td>객석규모</td><td>무대면적</td><td>무대시설</td></tr>
<tr><td>☑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td><td>☞무대너비(12m)×높이(8m)×깊이(10m)</td><td>*바텐 최소 4개, 덧마루 20개</td></tr>
<tr><td>기획 및
제작의도</td><td colspan="3">라벨라오페라단이 2014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하였던, 거장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라 보엠'은 거대한 책 모양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동화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무대미술과 연출 그리고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라 보엠>의 뛰어난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가진 작품을 예술성을 최고의 가치로 올해로 18년 째 오페라를 제작해온
라벨라오페라단만의 프로덕션을 통하여, 지역공연장의 부족한 부분인 질적으로 퀄리티 높은 소프트웨어를 충족 시킴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특성상 그랜드 오페라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게 한다.

또한 서울 주요극장에서 매년 오페라를 올리고 있는 손꼽히는 민간단체인
라벨라오페라단은 검증된 기술과 예술성을 통하여, 퀄리티 높은 오페라를 제작한다.
라벨라오페라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수준의 오페라를 전국 공연장에 공급하여,
전체적인 문화수준을 끌어올리고 오페라 시장 저변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td></tr>
<tr><td>컨셉 및 주제</td><td colspan="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세상에 무수한 오페라에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 로맨틱한 사랑을 그려낸 오페라를 따지자면 단연 푸치니의 <라 보엠>을 빼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오페라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극을 이루는 짧은 네 막들은 저마다의 속도와 특징을 품고 있으며, 인물들의 개성은 잘 다듬어져있다.

오페라의 쓰인 곡은 쉽게 기억하여, 따라부를 수 있고 감동적인 선율들이 가득하다.

현대에도 오페라들이 작곡되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관객들이 푸치니의 오페라를 기억하고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도 푸치니가 작곡한 음악의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선율 때문일 것이다. 요즘 관객들의 입장에서 만난지 20분만에 사랑에 빠지는 로돌포와 미미를 이해하기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페라 전체적으로 캐릭터마다의 오케스트라와 메인선율을 보자면, 기가 막힌 동기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그 모두가 합쳐져 가장 로맨틱한 음악이 탄생하여, 음악으로 모두를 설득하게 된다. <라 보엠>의 빠질 수 없는 명곡인 아리아 몇 개와 중창 몇 개가 단지 이 오페라를 아름답게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성악가의 노래, 대화 사이사이 환상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무대 위에 가수들이 굳이 대사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있어, 음악만 듣고 있더라도 로돌포와 미미 그들의 감정의 진행 상태가 어떤지 청중이 알 수 있을 만 큼 <라 보엠>은 푸치니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중 하나 일 것이다.
그렇듯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를 국내 최고수준의 프로덕션과 성악가들의 노래를 통하여, 더 많은 지역의 관객들에게 오페라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자 한다.</td></tr>
</table>

구 분	내 용
내용 및 특징	**-라 보엠 시놉시스** 크리스마스 이브 파리, 시인 로돌포와 그의 친구들은 한 건물의 다락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친구들은 모두 무명의 예술가들로 화가 마르첼로,철학자 콜리네,음악가 쇼냐르이다. 무명의 가난한 예술가들은 방세가 몇 달치나 밀려있고 추운 겨울날 불을 땔 장작을 살 돈조차 없지만 항상 즐겁게 살아간다. 그러던 중 로돌포는 이웃 처녀 미미를 만나고, 둘은 한눈에 사랑에 빠진다. 마침 궁정에 취직하게 된 쇼나르가 벌어온 돈으로 미미와 로돌포 그리고 세 친구들은 화려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고, 마르첼로 또한 옛 연인이었던 무제타와 재회한다. 그러던 중 미미가 폐병에 걸려 죽어가지만 가난한 시인인 로돌포는 해줄수 있는 것이 없어 괴로워하고, 미미 또한 병에 걸린 자신이 로돌포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한다,. 결국 미미와 로돌포는 서로를 위해 헤어짐을 선택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쓸쓸하게 추억에 잠긴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미미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깊어져간다. 미미와 로돌포는 다시 재회하지만 그녀의 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로돌포의 다락방에서 미미는 그들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세친구와 무젯타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미미는 로돌포의 품에서 서서히 눈을 감는다. **-라 보엠 공연 특징** 거장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오페라 '라 보엠'은 19세기초 파리에서 성공을 꿈꾸는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이다. 돈은 없지만 젊고 치기 어린 열정적인 청춘의 이야기와 푸치니의 아름다운 음악이 만나 연말이 되면 단골로 올려질 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라 보엠>은 베리스모 시대의 낭만주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다. 이 오페라가 토리노 왕립극장에서 초연된 1896년은 이탈리아 베리스모 시대였는데, 이는 실제 현실과 다를 바 없는 적나라한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격정,절망,분노 등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라벨라오페라단이 2014년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올린 작품으로 시대성과 시간성을 정확하게 규정 짓지 않은 것이 연출의 특징이다. 오페라 무대로 거대한 책모양의 오브제가 등장하며, 이 오브제는 크게는 주인공들의 꿈꿨던 예술과 이상을 상징하고 작게는 시인인 로돌포의 삶과 사랑이 그의 가슴과 머리를 통해 한권의 책으로 완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설정을 표현하고 있다. 의상 또한 19세기를 큰 틀로 하고 있지만, 실루엣을 단순화 시켜 명쾌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우리들의 청춘을 돌이켜 보려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아름다운 음악과 후반부로 갈수록 비극적으로 치닫는 스토리라인과 대비되는 동화같은 무대세트가 미미의 죽음을 더 극대화 시킨다. (공연 수정 계획) 라벨라오페라단이 10년 만에 다시 올리는 작품인 <라 보엠>인 만큼 무대와 의상등 기본 틀은 가지되 2024년 버전으로 상당부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 공연장에 환경에 맞추어 공연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국내 최고의 제작진, 출연진들이 퀄리티 높고 작품성이 높은 공연을 지역 공연장에서 공연함으로써, 서울에만 집중 되어 있는 공연예술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지역 주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국내 최고수준의 오페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재 경제가 좋지 않아 순수 예술에 관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출연하는 많은 예술가, 스텝들의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오페라 특성상 공연에 투입되는 많은 인원들이 지역 공연장을 찾음으로써 숙박 및 식사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클래식 3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 뉴서울필하모닉의 브람스&라흐마니노프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명	뉴서울필하모닉의 브람스&라흐마니노프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newseoulphil.org/
실무자명	임지웅	E-mail	seoulphil01@hanmail.net
		연락처	(02)6002-6290~1
단체소개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991년 설립된 순수 민간교향악단으로 "대중 속에 사랑받는 정통 오케스트라"라는 취지 아래 성악가 출신 김혜란 교수, 첼리스트 출신 김봉 교수 그리고 60여명의 유능한 연주자들이 모여 처음 연주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7년 안당 단장의 제2창단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2024년 창단 33년이래 2,800여회 이상의 각종 정기연주회, 오페라공연 및 기획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216회의 민간교향악단 사상 최고 많은 횟수의 정기연주회와 매년 80회 이상의 공연을 하는 국내 최고의 정통교향악단으로 성장하였다.		
공연 가능기간	☑ 6월(2주~3주) ☑ 7월(1주~4주) ☑ 8월(3주) ☑ 9월(1주~4주) ☑ 10월(1주~4주) ☑ 11월(1주~4주) ☑ 12월(1주~4주)		
공연영상	https://youtu.be/FIlWuvch9Fg		
참여인원	총 65명 (출연진 63명 / 스태프 2명)		
소요시간	총 12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주관객층	20대~60대 전 연령층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	-	-

기획 및 제작의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대표하는 두 협주곡, 시대를 초월한 브람스와 라흐마니노프의 걸작,,, 세상에 공개된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시대를 초월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브람스가 작곡한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자 그의 최대 걸작으로 손꼽히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OP.77)은 원숙한 브람스의 깊이와 밀도를 가장 잘 드러내며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피아니스트의 한계를 시험하는 난곡으로 불리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피아노의 능력을 극대화한 명곡으로 모든 피아니스트가 정복하고 싶어 하는 경이로운 작품으로 여전히 선망받고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대표하는 두 협주곡의 통해 시대를 초월한 걸작이 가진 무한한 생명력과 정통 클래식의 찬란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컨셉 및 주제	-
내용 및 특징	■ 프로그램 **생상스-죽음의 무도 작품40** 뉴서울필하모닉 Saint-Saëns-Danse macabre, Op.40 **브람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작품77** Violin 임지영 Brahms-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Ⅰ. Allegro non troppo Ⅱ. Adagio Ⅲ. Allegro giocoso, ma non troppo vivace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3번 라단조 작품30** Piano 원재연 Rachmaninoff-Piano Concerto No.3 in d minor, Op.30 Ⅰ. Allegro ma non tanto Ⅱ. Intermezzo: Adagio Ⅲ. Finale: Alla breve ■ 출연자 **Conductor | 장윤성** 서울예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과 비엔나 국립음악원 지휘과에서 수학하였다. 난파음악상 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중앙콩쿠르, 동아콩쿠르에 입상하였고 러시아 프로코피에프 국제지휘자 콩쿠르 2위와 일본 동경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1위없는 2위에 입상하였다. 세계적인 작곡가 펜데레츠키에게 한국정부가 위촉한 교향곡5번 <Korea>를 유럽에서 초연하였으며 동경에서 매년 열리는 5000명의 합창단이 부르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 연주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2회 초청 받기도 하였다. 또한 러시아 마린스키오페라오케스트라와 카메라타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한국 투어 체코 야나첵필하모니, 브르노필과 오스트리아 투어, 독일 뉘른베르크 심포니와 독일 4개도시 투어, KBS교향악단, 서울시오페라단, 프라임필과 일본 투어를 하였으며 러시아 대표적인 교향악단인 상트페테르스부르크 필하모니와 마리인스키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체코 프라하방송교향악단, 브르노심포니, 야나첵심포니,프라하심포니, 헝가리 부다페스트심포니, 이태리 로마심포니, 산타체칠리아마드리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심포니, 클라겐푸르트심포니, 독일의 뉘른베르크심포니, 로베르트 슈만심포니 켐니츠, 폴란드 크라코프필, 우크라이나 하르코프필, 일본의 오사카 필하모니, 큐슈심포니, 도쿄심포니등 다수의 유수한 악단과 연주하였다.

구 분	내 용
	서울시향 수석객원지휘자와 울산시향, 창원시향, 대전시향, 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등 국내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와 일본 오사카 칼리지 오페라하우스 수석지휘자 그리고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전임지휘자로 활동하였고 경희대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Violin | 임지영** 임지영은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분에서 20세의 어린 나이에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뮌헨 캄머 오케스트라,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오케스트라, 브뤼셀 필하모닉, 룩셈부르크 필하모닉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개성 있는 솔리스트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21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에 유일한 클래식 연주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9년 3월에 방한한 벨기에 국왕 주최 음악회 무대에 오르고, 같은 해 4월에는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연주하는등 여러 국가적인 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아티스트로서 활약해 오고 있다. 임지영은 현재 비에냐프스키가 사용했던 바이올린인 1717년 제작 스트라디바리 '사세르노(Sasserno)'를 일본음악재단으로부터 대여받아 연주하고 있으며, 2023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에 최연소 조교수로 전격 임용, 본격적인 교편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Piano | 원재연** 그의 세대에서 가장 특별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원재연은, 독일 Süddeutsche Zeitung 신문의 "천상의 소리가 여기 홀을 강타했다" 평론과 피아니스트 당 타이 손의 "제일 높은 피아니스틱 프로페셔널리즘에 다다르는 진한재능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극찬을 받으며 유럽과 한국에 알려졌다.

구 분	내 용
	원재연의 예술적 토대는 다이나믹 폭이 넓은 감성과 사색적인 지성에 있다고 평단에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마리아 주앙 피레스, 당 타이 손, 케빈 케너 등의 지속적인 예술적 조언을 받고 있다. 또한,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데 갈리시아, 하이든 오케스트라, 웨스트 작센 심포니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타이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니마 무지칼레 챔버 오케스트라 등 유럽과 아시아의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한 오케스트라를 지휘자 울리히 빈트푸어, 아르보 볼머, 엔리케 가르시아 아센시오, 윤리(이윤국) 그리고 대럴 앙 등 의 지휘와 함께 연주했다. 그의 리사이틀은 독일의 유서 깊은 연주 장소인 베를린 필하모니, 본 베토벤 하우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알테 아울라, 프랑스 파리 살 가보, 살 코르토, 멕시코 듀랑고 리카르도 카스트로 극장 그리고 뮌헨 헤라클레스 홀 등 에서 초청 및 재초청 받았으며, 실황 공연 방송에는 독일(BR-Klassik), 프랑스(France Musique), 스페인(RNE), 멕시코(Radios de Durango), 이탈리아(Rai) 그리고 오스트리아(ORF) 등에서 그의 연주가 전국적으로 방송 되었고, 특히 독일 BR 클래식 라디오에서는 다수의 실황연주 방송과 음반 소개로 참여되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연주는 교향악축제, 대한민국 국제 음악제 등 한국에서 대표하는 음악 축제에 초청받았으며, 특히 2021년 그의 첫 번째 한국 4개 도시 리사이틀 투어, 서울, 부산, 광주 그리고 고양에서의 연주를 성료했다. 그리고 그가 출연한 폴란드 한국 합작 음악 다큐멘터리 <Chopin: Ich fürchte mich nicht vor der Dunkelheit>는 쇼팽의 음악으로 2차 세계 대전, 시리아 내전 그리고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폴란드 문화관광부, 폴란드 방송사 TVP 및 쇼팽협회와 미츠키에비치 재단의 후원을 받아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몰타, 미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 2023년 개봉하였고 권위있는 영화제의 초청 및 수상과 함께 평단의 찬사를 받고있다. 그는 강충모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파벨 길릴로프와 함께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대학에서 그리고 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와 함께 쾰른에서 공부했다. 제61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2등상)과 청중상을 동시에 거머 쥐었고, 일찍이 이화경향음악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였으며, 프랑스 파리 롱티보 국제 음악 콩쿠르 1등상 수상, 스페인 페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독일 쾰른 칼로버트크라이텐 프라이즈 등 많은 국제 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원재연은 2020년 독일의 Acousence 레이블에서 첫 데뷔 앨범 "Bach to Bartok"을 인터네셔널 출반했고 다가오는 시즌 독일 Oehms 레이블로 그의 새로운 앨범들을 발매할 예정이다. 또한, 원재연은 Steinway Artist로 활동 중이다.
기대효과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 음악의 향유와 지역 문화 교육발전에 기여,,,,,** 브람스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은 고품격의 음악성과 예술적 표현을 담고 있어, 지역 사람들에게 깊은 예술의 가치를 나누고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클래식 전공자와 청소년들, 그리고 일반 관객에게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클래식 음악의 교육적 가치가 강조되어 지역 클래식 교육 환경의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가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래식 4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한낮의 클래식 산책] 클래식 히스토리 콘서트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명	[한낮의 클래식 산책] 클래식 히스토리 콘서트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www.sgpo.co.kr
실무자명	서현	E-mail	sgpo2012@sgpo.co.kr
		연락처	(02) 598-7388
단체소개	**1.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창단 29주년 전통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예술단체(서울시 지정 제2018-02호)**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995년 창단하여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하였다. 클래식 공연문화보급에 앞장서 온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 최고의 연주자를 선발하여 정통 클래식은 물론 오페라,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 상임지휘자 서훈** **- 부천시립교향악단 초대 상임지휘자 /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서훈은 1987년 부천 시립교향악단의 초대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면서 공식적인 지휘활동을 시작하였다. 대중들과 더 많은 접점을 형성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지휘자 서훈은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및 대한민국영화음악페스티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3. 사업 운영 역량** - 월 1회 이상의 관, 현 파트 오케스트라 연습 실시 - 단체 기량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시스템 도입 (상임지휘자에 의한 평가 시스템) - 자체 공연기획팀에 의해 매년 새로운 기획공연을 제작 - 매년 1회 이상의 신작 공연을 통한 신진 작곡 & 연출가 발굴 노력 - 2016년부터 꾸준히 초/중/고교에 클래식 공연을 제작&보급하는 사회공헌활동 - 2021년부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년 연속 공식 초청 오케스트라로 영화/영상 음악 전문 오케스트라로 활동 영역 확장		
공연 가능기간	☑ 9월(1~4주) ☑ 10월(1~4주) ☑ 11월(1~4주) ☑ 12월(1~4주)		
공연영상	https://youtu.be/X3NsHAWXnfQ		
참여인원	총 21명 (출연진 19명 / 스태프 2명)		
소요시간	총 7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1회차. 오전 : 마티네 콘서트의 주 관객층인 주부 및 노년층 2회차. 오후 : 주부 및 노년층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5m)×높이(5m)×깊이(9m)	그랜드피아노, 보면대, 의자, 장의자
기타사항	무대 면적은 20인 규모 오케스트라가 들어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 분	내 용
기획 및 제작의도	- 지휘자 서훈의 해설과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는 클래식 음악 사조 콘서트 - 바로크~근대 이후의 클래식 음악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토크 콘서트 - 관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지휘자 서훈의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콘서트 (1부. 주부 및 노년층 / 2부. 중고생 및 학부모) - 피아노 독주와 바이올린, 클래식 기타, 소프라노 등 솔리스트 협연으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 구성
컨셉 및 주제	- 공연은 [한낮의 클래식 산책]이라는 부제로 주로 낮 시간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주부, 노인층을 위한 마티네 콘서트 컨셉으로 진행 - 본 공연에는 교육적 목적도 있기에 2회 공연을 하게 되는 경우 학교 귀가 시간을 고려하여 중고등생 및 학부모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
내용 및 특징	**<프로그램>** **Ⅰ.바로크 음악** -바흐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중 1악장 J.S.Bach / Brandenburg Concerto NO 3 in G Major, BWV 1048 -비발디 /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가을 (바이올린 협연) A.Vivaldi / Autumn from The Four Seasons Op.8 -헨델 /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하소서" (소프라노) G.F.Handel / "Lascia ch'io pianga" **Ⅱ.고전주의 음악** -지오다니 / 오 내사랑 (소프라노) G.Giordani / Caro mio ben -호프슈테터 / 현악 사중주 세레나데 중 2악장 Hoffstetter / String Quartet in F Major, H.III No.17, Op.3 No.5 - "Serenade" - 2. Andante cantabile -모차르트 /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중 1악장 W.A.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KV 525 1st mov **-모차르트 /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C장조 변주곡 (피아노 독주)** **W.A.Mozart / 12 Variationen in C über das französische Lied "Ah, vous dirai-je, maman" KV 265** **Ⅲ.낭만주의 음악** -차이코프스키 /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2악장 P.Tchaikovsky / Serenade for Strings Op. 48 2nd mov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피치카토 폴카** **J. Strauss II / Pizzicato Polka** **Ⅳ.근대 이후 음악** -쇼스타코비치 / 재즈모음곡 2번 "왈츠" D.Shostakovich / Jazz Suite No.2 Waltz -디앙 / 탱고 앤 스카이 (클래식 기타 협연) Roland Dyens / Tango en skai -타레가 /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클래식 기타 독주) Tarrega / Recuerdos de la Alhambra -피아졸라 / "리베르 탱고 " A.Piazzola / Liber Tango

구 분	내 용
	<공연 수정 계획> - 1일 2회의 공연으로 가정했을 때 오전 공연은 주부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양강좌 형태의 토크 콘서트로 진행하고, 오후 공연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위주의 해설로 차별화를 둘 예정 - 교육적 목표가 있는 콘서트의 특성상 다양한 음악적 기법에 대한 해설과 작품을 추가 · 변주곡의 이해 (모차르트 /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C장조 변주곡) · 파치카토 주법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피치카토 폴카) - 피아노 독주곡 추가
기대효과	**1) 사업성과** - 서양 음악 사조에 대한 이해와 시대별 대표 작곡가를 소개함에 따라 관객의 교양을 길러줄 콘서트 - 협연, 독주와 더불어 변주곡, 피치카토 등 다양한 음악적 기법을 소개하는 콘서트 - 다소 보수적인 클래식 공연의 이미지를 벗어나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난 해설로, 클래식 감상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클래식 감상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 **2) 파급효과** - 마티네 콘서트 컨셉으로 문화생활이 쉽지 않은 주부 및 노년층을 주 관객층으로 하는 콘서트 - 교육적 목적이 함께 포함된 콘서트로 중고등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접한 클래식을 공연장에서 실제로 감상하는 기회

클래식 5 오디 : 가난한 크리스마스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오디		
공연명	가난한 크리스마스		
단체 소재지	경기	홈페이지	www.audiemusic.com
실무자명	노은진	E-mail	audie2014@naver.com
		연락처	(02) 3445-5205
단체소개	오디는 1997년 설립되어 영유아 음악감수성을 선도한 연구교육기관이다. 27년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어린이의 예술감수성 및 음악발달을 함양하는 교육을 연구해왔다.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선정되고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여하는 유아프로그램의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을 한국 최초로 무대에 올린 <행복한 미술관에 간 윌리> 초연으로 음악교육극 장르를 개척하였다. 커다란 그림책을 무대에서 음악으로 읽어주는 <행복한 미술관>과 <미술관에 간 윌리> <우리엄마>, 전래동화를 소재로 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혹부리 영감>, 순수 창작극 <오디 동화 콘서트> 및 체험 전시 <미술관으로 간 소리>와 <미술관으로 간 노래> 등 오디 공연은 많은 부모와 매체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2022년 12월에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장애인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창작공연 <크리스마스 선물>을 베리어 프리 극으로 상연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예술의전당 어린이라운지에서 가족 음악회의 형식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하우스콘서트를 열었다. 2023 4월 20일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두 곡이 예술의 전당 IBK 홀에서 연주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꾸리는 '가온 솔로이스츠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 선택된 두 곡은 우리들의 블루스 정은혜 작가의 그림을 배경으로 연주되었다. 오디 공연의 특징은 1) 질 높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2) 고정된 장르의 경계를 허문 융복합 공연으로서, 3) 따뜻한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 4) 어린이뿐 아니라 부모, 성인이 함께 동심을 즐기는 가족극 5) 창의적 음악감수성을 함양하는 음악예술교육극을 추구한다.		
공연 가능기간	☑ 11월 ☑ 12월(1주, 2주, 3주, 4주)		
공연실적	**<신청 공연 실적>** ㅇ 2022.6.~ 1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2022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지원금 7천만원) ㅇ 2022. 11. 17~1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400만원) ㅇ 2022.12.10. 15:00 / 19:0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베리어 프리 공연 **<단체 공연 실적>** 1. 2023.12.2.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미술관에 간 윌리 2. 2023.04.20.~05.13. 한국잡월드나래울극장, 미술관에 간 윌리 3. 2022.12.1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크리스마스 선물 4. 2021.07.03. 구로아트벨리예술극장. 미술관에 간 윌리		
공연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gwsTkwriBc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r>
<tr><td>참여인원</td><td colspan="3">33명 (출연진 17명 / 스태프 16명)</td></tr>
<tr><td>소요시간</td><td>총 60 분 (인터미션 없음)</td><td>주관객층</td><td>어린이와 가족</td></tr>
<tr><td rowspan="2">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td><td>객석규모</td><td colspan="2">무대면적</td><td>무대시설</td></tr>
<tr><td>☑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td><td colspan="2">☞ 무대너비(12m)×
높이(5m)×깊이(10m)</td><td>-</td></tr>
<tr><td>기획 및 제작의도</td><td colspan="4">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마음 따뜻해지는 공연이 없을까?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이외에 유아와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모두가 행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공연, 아이들의 음악 감성이 함양되는 예술교육공연을 기획하였다.
오 헨리의 고전적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스토리의 적합성을 토대로 극이 가지는 어두운 그림자를 음악으로 걷어내 어른들에게는 친근한 이야기로, 젊은 연인과 부부에게는 신선한 희생으로, 어린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공연으로 탄생시키고자 하였다. 극장은 크리스마스 씨즌의 풍성한 레퍼토리를 제공하고 관객들에게는 가족의 의미, 사랑의 힘, 헌신의 아름다움을 가감 없이 감동적으로 느끼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공연예술가와 기획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매우 시기적절하고 아름다운 음악 공연의 기회가 될 것이다.</td></tr>
<tr><td>컨셉 및 주제</td><td colspan="4">본 공연은 2022년에는 음악극이자 베리어프리 공연으로, 2023년에는 가족음악회 형식의 하우스콘서트로 공연을 기획하였으며 공연의 삽입곡들이 음악회의 개별 레퍼토리로 연주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왔다. 2024년도에는 갈라 콘서트 형태로 공연을 제작하고자 한다.
악기 앙상블과 노래의 규모와 벨런스를 대폭 확장하여 음악적으로 한층 질 높은 공연을 선사하고 극과 스토리 등 연극적 요소는 나레이션이 역할을 맡는다. 2023년 12월에 가족 음악회 형식으로 공연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층 다양한 악기를 선보이고 극과 음악의 이해와 예술성을 한층 높이는 영상이 등장한다.
델라와 짐의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으며 정신적인 것에 있음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일깨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에 담긴 마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다가간다.
"선물 받는 날"로 새겨진 성탄절을 "사랑을 나누는 날"로 인식하여 어른에게는 부부의 사랑을 성찰할 계기를 주고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크리스마스 선물 본래의 뜻을 내면화하려는 것이 공연의 주제이다.</td></tr>
<tr><td>내용 및 특징</td><td colspan="4">1) 내용 및 특징
내용:
가난한 부부 짐과 델라가 서로를 위해 준비한 희생적인 크리스마스 선물이야기.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장식을 사려고 남편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금시계를 팔고 아내는 유일한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백금 시곗줄을 마련한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한 두 사람의 사랑이 감동으로 다가와 동방박사의 선물처럼 성탄절에 희망과 축복의 빛을 드리운다.
특징:
1. 다양한 클래식 악기 앙상블: 모든 악기들이 Tutti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곡마다 다른 편성으로 어떤 악기가 연주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며 볼 수 있도록 조명을 활용하여 악기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td></tr>
</table>

구 분	내 용
	2 클래식 성악 4중창: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성악가들이 각자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고 또한 서로 다른 앙상블로 다양한 조합의 화성을 들려주어 어린이의 화성 감수성을 자극한다. **3 어린이의 이해를 돕는 나레이션:** 순수 클래식 악기와 성악가들의 노래를 어린이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이 추상적인 음악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흥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아름다운 영상:** 영상미를 추구하여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동시에 제공하여 시각적인 자극이 없는 갈라 쇼를 입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향상한다. **5 참여하는 악기 연주:** 크리스마스 선물을 둘러싼 감동적인 스토리와 음악을 들을 이후에 주인공이 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하여 관객 어린이들이 공연에 등장했던 작은 타악기들을 무대에서 직접 연주해 볼 기회를 가짐으로써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 음악회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느낀다. **2) 공연수정 계획** **1. 갈라 콘서트:** 배우 역할을 덜어내고 연주자들이 참여하였던 극과 대사를 나레이션에게 부여한다. **2. 음악적 경험 강화:** 클래식 악기 편성을 확장하고 악기 간의 앙상블 및 각 클래식 악기의 특색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면서 볼 수 있도록 교육적 내용을 숨겨서 악기 편곡을 진행한다. **3. 나레이션의 예술:** 나레이션이 극의 내용과 재미를 충분히 전달하되 설명적이 되지 않고 극의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나레이션을 통해 어린이 문학예술의 사례를 만든다. **4. 제목 수정:** <크리스마스 선물>의 갈라 콘서트 버전 제목은 **<가난한 크리스마스>**로 한다.
기대효과	**ㅇ 성탄절 공연 레퍼토리 확장** - 성탄절 특별 시즌에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따뜻한 공연 개발 - 동일 공연이 모든 지역 공연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어 지방 공연장의 수준 격상에 이바지 - 해마다 볼 수 있는 성탄공연으로 기대감을 조성, 공연장에 방문하는 고정 고객 확대 **ㅇ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예술을 누릴 권리 보장** - 어린이들의 클래식 악기와 성악가 무대를 즐기며 클래식 예술을 누릴 기회와 권리 보장 - 어린이들의 문화 향유권을 통해 미래의 고객 개발 - 가족극의 가치와 필요성의 인식 제고 **ㅇ 작품의 브랜딩화** - 유투브와 SNS를 활용하여 제작과정을 공유하여 잠재 관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 리딩, 클래식 악기 연습과정, 성악 연습과정, 나레이션 연습 과정, 총괄 연습 등 전체과정 공유 - 매칭되는 지역의 채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상호 소통 방식의 홍보 **ㅇ 한가지 공연의 다양한 버전 개발** - 민간단체가 하나의 공연을 다양한 버전으로 개발하여 내부의 창의적 역량을 증폭하는 데 기여 - 클래식 음악 연주자와 성악가들에게 한층 다양한 무대를 제공 - 클래식 음악 연주자와 성악가들이 어린이와 가족에게 다가갈 기회 제공 **ㅇ 공연장의 활성화** - 이슈를 만드는 공연을 통해 공연장을 활성화 - 상호 소통방식의 SNS와 유투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연과 공연장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 집중 - 지역주민들이 순수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 제공

클래식 6 클랑아트컴퍼니 : 꿈의 아리아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클랑아트컴퍼니		
공연명	꿈의 아리아		
단체 소재지	경기	홈페이지	-
실무자명	김준동	E-mail	hanadulhanadul@hanmail.net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경기도지정 전문예술단체 클랑아트컴퍼니는 보다 새롭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대중적인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한국 신작가곡,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미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 등을 스토리화하고 연출로 극을 만들어 새로운 장르의 융복합 무대를 만들어가는 클래식 앙상블입니다. 현재는 음악의 리트(LIED)와 연극의 플레이(PLAY)를 융복합한 새로운 장르인 리트플레이를 만들어 공연하고 있으며, 영재 신인 재능 개발, 창작 등의 다른 콘서트와 차별화를 기준으로 클래식 콘서트와 연극 등 순수예술의 창작과 대중화를 위해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 창단 2017년 영아티스트 릴레이 콘서트 클랑아트홀 6회 2017년 영아티스트 음악회 솔가람아트홀 2018년 신인음악회, 정기연주회 영산아트홀 2019년 리트플레이 장르개척 '겨울나그네, 백조의노래' 2020년 경기문화재단 후원 '꿈의 아리아' 제작 2021년 모노오페라 '라 칼라스' 제작 2022년 리트플레이 '아름다운 마겔로네' 제작 2023년 리트플레이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제작		
공연 가능기간	☑ 6월(1주, 2주) ☑ 7월(3주, 4주)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공연실적	**<신청 공연 실적>** ㅇ 2020.11.21.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지원사업 선정(지원금 1천5백만원) **<단체 공연 실적>** 1. 2023.11.04.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오페라 라 칼라스 2. 2023.09.12. 용인포은아트홀, 오페라 라 칼라스 3. 2023.07.21. 이천아트홀 소공연장,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4. 2023.04.29.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아름다운 마겔로네 5. 2023.03.25.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오페라 라 칼라스 6. 2023.02.24.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리트플레이 겨울나그네 7. 2022.12.27.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리트플레이 겨울나그네 8. 2022.10.13.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아름다운 마겔로네 8. 2022.06.14.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모노오페라 라 칼라스 9. 2021.12.17.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리트플레이 겨울나그네 10. 2021.12.15.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리트플레이 겨울나그네 11. 2021.12.11. 대구어울아트센터 함지홀, 리트플레이 겨울나그네 12. 2021.04.16. 예술의전당 인춘아트홀, 모노오페라 라 칼라스 ▸2021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우수작품선정 대구어울아트센터,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강릉아트센터 ▸2023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우수작품선정 용인포은아트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4">내 용</th></tr>
<tr><td>공연영상</td><td colspan="4">-</td></tr>
<tr><td>참여인원</td><td colspan="4">총 26명 (출연진 11명 / 스태프 15명)</td></tr>
<tr><td>소요시간</td><td colspan="2">총 120분 (인터미션 없음)</td><td>주관객층</td><td>8세이상 전 연령</td></tr>
<tr><td rowspan="2">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td><td>객석규모</td><td colspan="2">무대면적</td><td>무대시설</td></tr>
<tr><td>☑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td><td colspan="2">무대너비(10m)×높이(8m)×깊이(10m)</td><td>조명 바텐 5개, 덧마루 수 2100*1200 10개</td></tr>
<tr><td>기획 및 제작의도</td><td colspan="4">예술가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예술을 계속해야만 하는 사명을 담아보고자 영상과 인터뷰를 곳곳에 배치하여 극을 만들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으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 연령이 관람할 수 있어 음악, 연극, 영상 교육으로도 우수한 작품입니다.
노래를 하는 성악가.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꿈의 무대를 하나쯤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리아를 부르고 극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관객들의 환호에 파묻히는 그런 꿈의 무대가 있습니다.
밀라노의 '라 스칼라', 비엔나의 '국립오페라하우스', 파리의 '가르니에(바스티유)', 런던의 '로얄오페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언젠가 그런 무대에서 멋진 아리아를 부르는 꿈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꿈은 늘 무대를 향합니다. 무대와 관객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습니다. 악몽과도 같은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지나오면서 우리는 무대와 관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긴 우리 모두가 말하고 싶은 나의 꿈을 아리아로 담아 만들어 보았습니다.</td></tr>
<tr><td>컨셉 및 주제</td><td colspan="4">클래식이지만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오페라
유명 아나운서의 재치있는 해설로 한곡 한곡 금방 오페라 속으로 빠져듭니다.
카르멘과 친구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한편의 새로운 오페라! 성악가와 스토리텔러는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자 친구들이면서 긴밀하게 연결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무대에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스톱모션으로 있던 인물들은 만토바공작의 노래로 숨겨져 있던 이야기 상자가 열리듯 깨어나고 오페라 서곡과 함께 흥겨운 분위기에 도취된다. 카르멘과 투우사, 그녀의 친구들과 흥겨운 파티를 여는 동안 일어나는 사랑과 질투, 설렘, 우정을 잘 담아낸 오페라 콘서트인 꿈의 아리아는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될 수도 때론 조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td></tr>
<tr><td>내용 및 특징</td><td colspan="4">한번 등장을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노래와 극은 사람들을 공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영화나 TV, CF나 라디오에서 흔하게 접하던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들이 화려한 조명과 친절한 영상, 성악가들이 이끌어가는 노래와 극을 통해 100년전 작곡 된 아리아들이 눈앞에서 살아나서 움직이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td></tr>
</table>

구 분	내 용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 전체의 큰 영상에 각자의 꿈의 무대를 소개하는 인터뷰와 함께 꿈의 아리아가 시작된다. 무대 멀리서 들여오는 **1. Overture – Opera Rigoletto (오페라 리골레토)**의 서곡으로 아래에 있던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석고상처럼 굳은 성악가들이 등장한다. 조명이 실루엣의 성악가들을 깨워내고 첫 번째 노래 **2. G. Verdi – Questa o quella (이것도 저것도)**를 두 명의 테너가 번갈아가며 노래하며 모든 친구들에게 움직임을 준다. 모두 깨어난 사람들은 카르멘의 매혹적인 등장 **3. G. Bizet – Habanera (하바네라)**으로 축제의 분위기로 전환된다. 뒤이어 카르멘보다 슈퍼스타 투우사가 등장하여 **4. G. Bizet – Toreador song (투우사의 노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를 받으며 노래한다. **(공연 수정 계획 등)** 지역과 극장에 따라 특생에 맞는 영상과 소품을 사용하여 마치 공연하는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갑니다. 라보엠에 나오는 거리를 지역에 유명한 거리로 이름을 바꾼다던지 약장수가 파는 약을 지역 특산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더욱 친근하게 접근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오케스트라 피트가 없거나 무대의 깊이나 높이가 넓이가 부족한 경우에도 극에 큰 지장없이 수정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순수 예술과 클래식 음악은 종종 공적 자금을 소비한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치성 문화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소위 마니아들만을 위한 시장이고 대중적 인기가 없다는 논리가 작동해, 클래식 예술가들에게 국가나 지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의 특수 계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뒤떨어진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30일에 끝난 '제97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데이터는 이런 기존의 비판과는 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클래식, 오페라, 연극 등 소위 말하는 비대중적인 공연이 97%에 육박하는 수치의 순수 클래식 공연만으로 구성된 이 축제는, 5유로에서 450유로 사이의 공연 티켓이 250,000장 이상이나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게다가 거의 50,000여 명이 무료 관객이었음을 감안 한다면 엄청난 관람수익을 올렸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하듯 특별하면서도 쉽게 다가갈수 있고 재미있는 클래식 공연을 지역 극장의 레퍼토리로 삼아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주변 관광 상품과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 공연예술 단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클래식 7 누리콜렉티브 : Concertare 콘체르타레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누리콜렉티브		
공연명	Concertare 콘체르타레		
단체 소재지	인천	홈페이지	www.nuricollective.com
실무자명	이영학	E-mail	ensemblenuri@gmail.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2018년 바르셀로나에서 창단된 이후 국제적 앙상블 누리 콜렉티브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남미 등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로 결성되었다. 누리는 순우리말로 세계라는 의미로 누리 콜렉티브를 대표하는 음악가들 그리고 그들의 폭넓은 음악 세계를 뜻하며, 그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유럽과 한국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누리 콜렉티브는 2019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젊은 한국의 연주자들 "Junge Koreanische Talente" 시리즈에 처음으로 소개되어 바로크 악기들로 작곡가 김용희와 알레한드로 모레노의 작품을 초연하였으며, 같은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스티나토 베이스를 주제로 공연을 기획하였다. 국내에서는 2020년 Concert Spirituel 공연을 시작으로 춘천국제고음악제,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와 더불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무대에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누리 콜렉티브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다양한 편성의 바로크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누리 콜렉티브는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잊힌 옛 음악을 발굴하여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데 힘쓰고 있고, 동시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진정한 시대 음악연주 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공연 가능기간	☑ 6월(4주) ☑ 7월 ☑ 8월 ☑ 10월 ☑ 12월(2주, 3주)		
공연실적	**<신청 공연 실적>** - 2023.09.07. 덕수궁 관리소 공동주관 -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선정 - 2021.09.15. 춘천국제고음악제 초청 **<단체 공연 실적>**		

날짜	프로젝트명	장소	주최/주관	후원
2023				
11.21.	인피니토	울림과 퍼짐	누리 콜렉티브	울림과 퍼짐
11.17.	인피니토	엘림아트센터	누리 콜렉티브	서구문화재단
11.01.	인피니토	코스모40	누리 콜렉티브	인천문화재단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td><td>
<table>
<tr><td>10.22.</td><td>문화의 다양성</td><td>Paroisse de Montbrillant, 제네바, 스위스</td><td>에스프릿 소노르 페스티발</td><td>제네바 원 협회, 인천문화재단</td></tr>
<tr><td>09.24.</td><td>문화의 다양성</td><td>엘림아트센터</td><td>엘림아트센터</td><td></td></tr>
<tr><td>09.17.</td><td>저스트 인 비버</td><td>엘림아트센터</td><td>엘림아트센터</td><td></td></tr>
<tr><td>09.09.</td><td>저스트 인 비버</td><td>아르떼뮤지엄</td><td>누리 콜렉티브</td><td>디스트릭트</td></tr>
<tr><td>09.07.</td><td>콘체르타레</td><td>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td><td>누리 콜렉티브, 덕수궁 관리소</td><td>서울문화재단</td></tr>
<tr><td colspan="5">2022</td></tr>
<tr><td>09.21.</td><td>톡톡클래식 III</td><td>소월아트홀</td><td>성동문화재단</td><td></td></tr>
<tr><td>09.14.</td><td>톡톡클래식 II</td><td>소월아트홀</td><td>성동문화재단</td><td></td></tr>
<tr><td>09.07.</td><td>톡톡클래식 I</td><td>소월아트홀</td><td>성동문화재단</td><td></td></tr>
<tr><td>08.27.</td><td>여름음악축제: 저스트 인 비버</td><td>예술의전당 콘서트홀</td><td>예술의전당,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td><td></td></tr>
<tr><td colspan="5">2021</td></tr>
<tr><td>10.07.</td><td>텔레만니아</td><td>세종문화회관</td><td>누리 콜렉티브, 봄아트프로젝트</td><td></td></tr>
<tr><td>10.05</td><td>페스티발 in 독일</td><td>예술의전당</td><td>JSBACH 프로덕션</td><td></td></tr>
<tr><td>09.15</td><td>콘체르타레</td><td>춘천국립박물관</td><td>춘천국제고음악제</td><td></td></tr>
</table>
</td></tr>
<tr><td>공연영상</td><td>-덕수궁 석조전: https://www.youtube.com/watch?v=ucCvGZ3c4os
-춘천국제고음악제: https://www.youtube.com/watch?v=1yYrZIq8YTM</td></tr>
<tr><td>참여인원</td><td>총 10명 (출연진 7명 / 기획 1명 / 스 2명)</td></tr>
<tr><td>소요시간</td><td>총 7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10~50대</td></tr>
<tr><td>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td><td>
<table>
<tr><th>객석규모</th><th>무대면적</th><th>무대시설</th></tr>
<tr><td>☑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td><td>-</td><td>-</td></tr>
</table>
</td></tr>
<tr><td>기타 사항</td><td>시대악기로 연주하기에(거트현 사용) 대·•중극장의 경우 장소의 특성에 따라 확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td></tr>
<tr><td>기획 및 제작의도</td><td>음악의 꽃이라 불리는 협주곡, 그 시작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CONCERTO
1. lat. Cumcérto 함께 겨루다.
2. it. Concertàre 조화되게 하다.

17세기부터 협주곡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의 조금은 엉뚱하고 실험적인 편성을 시도하며 발전해 왔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협주곡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 어원대로 함께 겨루기도 하며 조화롭게 하는 모습을 작곡가들은 음악 속에서 어떻게 표현했을지 소개한다.</td></tr>
</table>

구 분	내 용
컨셉 및 주제	클래식 음악에서 말하는 협주곡의 시작과 발전 과정의 모습에 대해 소개한다.
내용 및 특징	**음악의 꽃, 협주곡 그 시작과 과정** 프로이센 왕국의 국왕 프리드리히 2세의 플루트 스승이자 연주자, 제작가 그리고 작곡가였던 요한 요아힘 크반츠(Johann Joachim Quantz)는 그의 저서《플룻 연주의 예술》(1752)에서 "협주곡(Concerto)의 근원은 이탈리아에 있다"고 서술한다. 협주곡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인 "concérto"에서 파생되었으며, "cum"함께+cérto겨루다의 합성어로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concertàre" 조화되게 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17세기부터 바로크 음악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발달해 온 협주곡은 협연자들과 기악 앙상블이 서로 기교를 뽐내며 경쟁하는 모습(concérto)과 함께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concertàre)이라는 두 가지 악곡 양식이 두드러진다. 바로크 작곡가들이 남긴 수많은 작품을 통해 협주곡은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완성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잊혀버린 탓에 오늘날의 우리에게 온전히 새롭게 느껴질 협주곡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형적인 바로크 시대 협주곡의 편성인 협연자, 제1, 제2 바이올린, 비올라, 바소 콘티누오 그룹과는 다른 조금은 색다르고 엉뚱한 편성의 협주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협연자의 연주가 아닌 조금은 가볍고 독특한 편성의 협주곡을 통해 별난 작곡가들의 유쾌한 면모를 드러내며 관객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것이다. ○ **프로그램** **1. Antonio Vivaldi - Chamber Concerto in A Minor, RV 108** 실내협주곡 A단조 RV 108 *Allegro - Largo – Allegro* - 편성: 리코더, 제 1 바이올린, 제 2 바이올린, 바소 콘티누오 **2. Antonio Vivaldi - Chamber Concerto in F Major, RV 100*** 리코더, 바이올린 바순을 위한 실내협주곡 F장조 RV 100 *Allegro - (no title) - Allegro* - 편성: 리코더, 바이올린, 바순, 바소 콘티누오 **3. Francesco Mancini - Concerto in D minor** 플룻, 바이올린, 비올레따 그리고 베이스 악기를 위한 작품집 중 6번 협주곡 D단조 *Amoroso - Allegro - Largo - Allegro* - 편성: 리코더, 제 1 바이올린, 제 2 바이올린, 바소 콘티누오 **4. Johann Adolph Hasse - Sonata in B-flat Major „cantata"** 소나타 B-flat장조 "칸타타" *(Allegro) - Adagio - Allegro* - 편성: 리코더, 바순, 바소 콘티누오 **5. Francesco Xaverio Geminiani - Concerto Grosso after Corelli's Op. 5 No. 10 in F Major, H. 141** (With ornamented solo part from the ‚Walsh anon. California manuscript) 코렐리 작품 5번에 의한 합주협주곡 중 10번 F장조 *Preludio, Adagio - Allemanda, Allegro - Sarabanda, Largo - Giga, Allegro - Gavotta, Allegro* - 편성: 리코더, 제 1 바이올린, 제 2 바이올린, 바소 콘티누오

구 분	내 용
	○ **작품소개** 현재 전해지는 것만 무려 477개의 협주곡을 작곡한 안토니오 비발디(Antonio Vivaldi* 1678-1741)는실험적인 악기편성의 실내협주곡들을 다수 남겼다. 실내협주곡 RV100 에서 그는 리코더, 바이올린, 바순 그리고 바소콘티누오 그룹이라는 다소 독특한 악기편성을 택했다. 특히, 리코더와 바순만의 이중주로 울려 퍼지는 2악장에서 목관악기 특유의 따뜻함이 주목받는다. 비발디의 실내협주곡 가단조, 나폴리 악파의 프란체스코 만치니(Francesco Mancini* 1672-1737)의 협주곡 라단조의 앙상블은 협주 악기인 리코더와 제1, 2 바이올린, 바소콘티누오 그룹의 구성으로 전형적인 협주곡 편성에서 비올라 파트가 빠진 모습이다. 역시 나폴리 악파의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평가받았던 요한 아돌프 하세(JohannAdolph Hasse* 1699-1783)의 칸타타 내림나장조는 리코더와 바소콘티누오를 위한 편성의 곡이다. 하지만 당시 유행했던 협주곡의 전형적인 악장 구성(빠름-느림-빠름)과 기교적인 리코더의 선율을 보여주며 동시대의 소나타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아르칸젤로 코렐리(Arcangelo Corelli*1653-1713)의 작품집 5번 "12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는1700년 로마에서 초판 된 이후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42번이나 재출판되었다. 여러 작곡가의 장식음이 첨부된 다수의 악보는 이 작품집의 인기를 증명해 줌과 동시에 당대의 장식음에 대해 배울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작품집이 초판 되고 약 26년 후인 1726년경 프란체스코 제미니아니(Francesco Xaverio Geminiani*1687-1762)는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들에 여러 성부를 더해, 오케스트라를 위한 12개의 콘체르토그로소- 합주협주곡(Concerti grossi composti del opera quinta d'Arcangelo Corelli)를 발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도서관이 소장 중인 하프시코드 솔로를 위한 Walsh anon. Manuscript에는 3번소나타의 3악장, 7번 소나타의 1악장, 8번, 9번, 10번 소나타의 전 악장 그리고 11번 소나타의 세 악장에 다양한 장식음이 추가되어 있다. 이번 연주에서는 Walsh anon Manuscript의 장식된 멜로디를 소프라노 리코더로, 제미니아니가 추가한 제 1,2 바이올린파트와 코렐리의 바소콘티누오 파트를 첼로, 하프시코드, 류트 그리고 바순으로 연주한다. **•공연수정 계획** 공연 길이에 따라 바이올린 2대를 위한 협주곡 또는 다른 작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새로운 모습의 리코더**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오랜 역사를 지닌 악기인 리코더를 주인공으로 한 연주 구성은 관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리코더의 다양한 가능성과 표현력을 선보임으로써 공연예술계 콘텐츠에 다양성을 더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젊고, 새로운 관객층 유입 기대** 빠르게 성장하는 젊고 신선한 시대 연주 단체인 누리콜렉티브는 기존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추구하는 20-40대 사이의 젊은 관람층이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덕수궁 공연의 매진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상되며, 보다 다양한 청중에게 시대 연주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클래식 8 (재)서울모테트음악재단 : 삶과 영혼의 노래_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재)서울모테트음악재단		
공연명	삶과 영혼의 노래_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www.seoulmotet.com
실무자명	박경민	E-mail	seoulmotet@hanmail.net
		연락처	(02) 523-7295
단체소개	1989년 창단 이후 35년을 맞이하는 서울모테트합창단(지휘자 박치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민간 프로페셔널합창단으로 자연스러운 발성과 풍부한 배음, 환상적인 하모니, 파트간의 균형과 조화, 단원들의 일체감 넘치는 리듬과 감정의 표현을 통해 최상의 합창음악을 선보이며 한국 합창음악을 선도해 온 합창단이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국내외 많은 평론가들로부터의 호평은 물론 1997년 협연했던 영국의 작곡가 겸 지휘자 존 루터와 2013년 협연한 독일의 헬무트 릴링등 합창음악과 교회음악의 세계적 권위자들과 수많은 국내외 유명 음악가들로부터 '음악성과 연주력이 세계 정상급 수준의 합창단'이라는 찬사를 들어왔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자생적 직업단체가 거의 없었던 한국의 음악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창의적인 영향을 끼쳐왔으며 한국 합창음악과 음악사회에 미래를 향한 이상적인 모델로서 평가받아왔다. 창단 이후 1,500여회의 연주를 통해 르네상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하고 폭 넓은 레퍼토리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보여 왔으며 특별히 바흐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연주로 한국 사회와 음악계에 바흐 음악을 알리고 보급하는데 기여해 왔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2002년, 2005년 두 차례의 독일 순회연주에 이어 '2015 Thüringer Bach Wochen'에 공식초청 되어 연주하였다. 그리고 2019년, 세계 최고의 바흐음악축제인 'Bach Fest Leipzig 2019(라이프치히 바흐 페스티벌)'에 한국 합창단 최초로 초청받아 라이프치히 마르크트 광장과 미하엘리스교회에서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외 2002년 일본정부 초청연주, 대만,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10여개 국가에 초청되어 100여회 연주하였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생명의 소리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과 진정한 프로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와 음악문화에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뛰어난 예술적 탁월함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며 합창음악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단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미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2004년 '제6회 게일 문화상', 2005년 '제37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음악부문 대통령상', 2011년 '제6회 대원음악상 연주상', 2014년 '제1회 문화예술 공연 단체상 문화체육부 장관상', '제7회 공연예술경영인협회 올해의 예술가상', 2016년 '제17회 한국 메세나 대상 Art& Business상', 2017년 '제3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4">내 용</th></tr>
<tr><td>공연
가능기간</td><td colspan="4">☑ 8월(4주) ☑ 9월(1주, 2주, 4주) ☑ 10월(1주) ☑ 11월(3주)</td></tr>
<tr><td>공연실적</td><td colspan="4"><신청 공연 실적>
ㅇ 2023.11.23. (한문연)2023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ㅇ 2022.05.28. 2022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20회 정기연주회 (롯데콘서트홀)

<단체 공연 실적>
1. 2023.11.23.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브람스 "독일 레퀴엠"
2. 2022.05.28. 롯데콘서트홀,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20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독일 레퀴엠"</td></tr>
<tr><td>공연영상</td><td colspan="4">ㅇ서울모테트합창단 제120회 정기연주회 (롯데콘서트홀) 공연실황
https://youtu.be/xfj0gYYS_Ws?si=dmkqgYsq4W9AaNqd</td></tr>
<tr><td>참여인원</td><td colspan="4">총 110명 (출연진 101명 / 스태프 09명)</td></tr>
<tr><td>소요시간</td><td colspan="2">총 80분</td><td>주관객층</td><td>초, 중, 고, 대, 일반</td></tr>
<tr><td rowspan="2">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td><td>객석규모</td><td colspan="2">무대면적</td><td>무대시설</td></tr>
<tr><td>☑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td><td colspan="2">☞ 무대너비(15m)×높이(12m
×깊이(12m)</td><td>합창단 단상 3단
(1단에 성인 13명),
지휘자 보면대 1,
오케스트라 보면대 40
CB의자 5
의자 100
음향판,
확성용 마이크(필요시),
기본 조명</td></tr>
<tr><td>기획 및
제작의도</td><td colspan="4">브람스가 레퀴엠 작곡을 끝내고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은 지금 위로 받았네. 결코 극복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장애를 이겨내고 높이 아주 높이 비상중이네" 라고 했다고 한다. 이 위로에 대한 사고가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과 라틴어로 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뭇 레퀴엠들과 구별 짓는 특성인 것이다. 그래서 브람스 레퀴엠은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인류의 진혼곡'이란 명제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삶과 영혼의 노래"라는 주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성을 생각하고 영혼의 안식을 얻어 진정 위로와 소망의 빛을 선사하고자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기획하였다.</td></tr>
<tr><td>컨셉 및 주제</td><td colspan="4">브람스의 작품을 평하는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인생에 있어서는 완숙함과 깊이가 느껴지는 '중년'으로, 계절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무르익고 풍성한 '가을'로 얘기하곤 한다.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브람스의 작품은 음악가들이 젊은 때는 잘 연주하지 않는다. 테크닉적으로는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겠지만 독일 낭만파의 어떤 작곡가들보다 삶과 죽음에 대해 깊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숙한 나이가 돼서야 무대에 올리곤 한다. 이번 서울모테트합창단이 연주하는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35년간 1,500여회 연주를 통해 차곡차곡 그 실력을 다져온 합창단의 완숙하고 기품 있는 연주가 될 것이다.</td></tr>
</table>

구 분	내 용
내용 및 특징	『"가장 순수한 예술적 수단, 즉 영혼의 따스함과 깊이, 새롭고 위대한 관념, 그리고 가장 고귀한 본성과 순결로 일궈낸 최고의 작품이다.....바흐의 [b단조미사]와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제외하면 이 분야에서 이 곡에 비견될 만한 작품은 없다." 라고 당대 최고의 비평가인 한슬릭이 극찬했던 [독일레퀴엠]은 브람스가 1856년부터 1868년까지 장장 10년이 넘는 시간을 소요하며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노작이다. 』 진혼곡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레퀴엠은 일반적으로 라틴어를 토대로 진행되지만 독일레퀴엠은 신학적인 조예가 깊었던 브람스가 자신의 신앙적 통찰에 따라 사람들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리기를 원했으며 루터의 독일어판 성경의 구절을 가사로 작곡 하였다. 신실한 루터교 신자인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한 신앙적인 노력을 이 작품에서 죽음의 평화와 안식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죽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훈하는 내용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참 평안길로 안내하는 시대를 초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브람스 '독일레퀴엠', J. Brahms 'Ein deutsches Requiem'**」 Ⅰ. Chor Selig sind, die da Leid tragen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Ⅱ. Chor Denn alles Fleisch, es ist wie Gras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Ⅲ. Baritone solo & Chor Herr, lehre doch mich 주여 가르쳐 주소서 Ⅳ. Chor Wie lieblich sind deine Wohnungen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Ⅴ. Soprano solo & Chor Ihr habt nun Traurigkeit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Ⅵ. Baritone solo & Chor Denn wir haben hier keine bleibende Statt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Ⅶ. Chor Selig sind die Toten, die in dem Herrn sterb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대효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중음악의 홍수 속에서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매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TV프로그램과 방송매체들은 음악적 가치와 예술적가치를 고려하기 보다는 보다 자극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러운 발성과 풍부한 배음, 아름다운 하모니로 대변되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의 합창음악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순수한 음악적 가치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아울러 '함께함'과 '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연주였다고 평가한다.

클래식 9 디토 오케스트라 : 바흐학개론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디토 오케스트라		
공연명	바흐학개론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www.dittoorchestra.org
실무자명	문수지	E-mail	dittoorch.moon@gmail.com
		연락처	(02) 440-0507
단체소개	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강동문화재단(강동아트센터)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장한나(트롬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이병욱(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츠지(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조수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 한 바 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과 더불어 최근에는 영화 <백두산>, <자산어보>, <모가디슈>의 OST 녹음에 참여하였다.		
공연 가능기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공연실적	**<신청 공연 실적>** ㅇ 2023. 07. 29 강동아트센터 청소년 여름 음악회 ㅇ 2018. 11. 16 반포 심산아트홀 **<단체 공연 실적>** - 2021.11.12. 예술의전당 외 <길위의 천국> *세계 초연 오페라 - 2022.07.23. 남한산성아트홀 외 <이상한나라의 디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선정작 - 2022.09.23. 강동아트센터 <Great Brahms>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지원 - 2022.12.13. 강동아트센터 <UNFINISHED>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 - 2023.05.20. 강동아트센터 <별주부전>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 - 2023.08.18. 강동아트센터 <This is Ravel>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 - 2023.08.29. 삼국유사군위교육문화회관 <이상한 나라의 디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선정작 - 2023.09.17. 예술의전당 외 <장한나 & 미샤 마이스키 with 디토 오케스트라> - 2023.10.07. 세종문화회관 <해리포터 불의 잔 콘서트> - 2023.12.09. 강동아트센터 <베토벤 NO. 9>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4">내 용</th></tr>
<tr><td>공연영상</td><td colspan="4">-</td></tr>
<tr><td>참여인원</td><td colspan="4">총 22명 (출연진 12명 / 스태프 10명)</td></tr>
<tr><td>소요시간</td><td colspan="2">총 70분 (인터미션 없음)</td><td>주관객층</td><td>청소년, 가족 단위 관객</td></tr>
<tr><td rowspan="2">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td><td>객석규모</td><td colspan="2">무대면적</td><td>무대시설</td></tr>
<tr><td>☑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td><td colspan="2">-</td><td>-</td></tr>
<tr><td>기획 및 제작의도</td><td colspan="4">○ 클래식 음악과 들어보는 한국사 이야기
- '음악의 아버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바흐의 음악을 파헤침과 동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한국사 이야기를 전문 해설자가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선보이고자 함.
- 역사 지식과 클래식이 융합된 콘텐츠로 지역 관객들의 견문을 넓히고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시키고자 함.
- 남녀노소 접근하기 쉬운 공연으로 가족 모두 함께 즐기는 가족 중심 프로그램 제공.
- 스토리텔링이 있는 클래식 공연으로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잠재 관객을 개발하고자 함.</td></tr>
<tr><td>내용 및 특징</td><td colspan="4">○ 바흐, 한국사를 만나다!
양복 회사의 CF로 사용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과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인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수많은 미디어에서 BGM으로 활용되고 있는 G선상의 아리아까지,바흐의 모든 음악을 알차게 들을 수 있는 공연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바흐가 활동했던 시기에 조선시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클래식 대표 오디오클립 채널 팟캐스트 <술술 클래식>의 MC로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평론가 이상민의 해설이 관객들의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 음악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조선시대.
바흐가 살던 그때,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바흐의 어린 시절, 조선에서는 지략과 미모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 며, 바흐가 '요한 수난곡'을 발표한 1724년에는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이번 기획은 예술과 역사가 결합 된 융복합 클래식 공연으로 지역민들에게 예술적 감성과 지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향유를 통해 관객들에서 힐링 콘텐츠를 선사하고자 한다.</td></tr>
<tr><td>기대효과</td><td colspan="4">- 다채로운 장르와 형태가 융합된 양질의 기획공연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적 수준 향상과 지역민의 문화 욕구 갈증 해소
- 가족 참여를 통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공연으로서 문화예술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역민의 문화복지 실현
-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음악평론가를 진행자로 초빙하여 한국사와 서양음악의 전문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
- 예술을 접목시킨 한국사 스토리텔링으로 문화와 역사 가치 확산 및 애국심 제고</td></tr>
</table>

클래식 10 ㈜툴뮤직 : The Beauty of Mendelssohn Piano Trio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의 아름다움)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주)툴뮤직		
공연명	The Beauty of Mendelssohn Piano Trio(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의 아름다움)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toolmusic.co.kr/
실무자명	오승은	E-mail	eunhyon1@naver.com
		연락처	(02)3443-5702
단체소개	커티스 트리오는 The Curtis Institue of Music(커티스 음악원)의 연주자들이 모여 결성된 팀으로 하노버 요하임 콩쿠르 우승 및 국제 콩쿠르를 다수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5위 및 각종 콩쿠르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효선, 서울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및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 트리오 부분 대상 등 화려한 경력을 소유한 주연선으로 결성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실내악 팀이다.		
공연 가능기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공연실적	- 2023.01.12. 토마토TV 초청 실내악의 계보 1회, 토마토홀 - 2023.05.12. 2023 내셔널 클래식 페스티벌, 포천아트밸리 - 2023.07.22. GMC SUMMER MUSIC FESTIVAL, 금난새 뮤직센터 - 2024.04.12. 해외 연주자 초청시리즈 앙상블은 지금요,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공연영상	2023.01.12 (목) 오후 7시 30분 **TV & 온라인 생중계** 실내악의 계보 No.1 커티스트리오 **https://youtu.be/XF7xMo-JCVE?t=113**		
참여인원	총 11명 (출연진 4명 / 스태프 7명)		
소요시간	총 8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주관객층	음악 애호가 및 클래식 음악 관객 멘델스존의 음악에 관심이 있는 이들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	상관없음	- 그랜드 피아노 1대, 피아노 의자 1개 - 보면대 2개 - 의자 2개

구 분	내 용
기획 및 제작의도	이 공연은 미국 최고의 명문 커티스 음대 출신 국제적인 연주자 커티스 트리오가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2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멘델스존은 로맨틱 시대의 특징적인 감성과 표현력을 대표하는데, 이러한 면모를 공연에서 최대한 강조하여 멘델스존의 시대적 특성과 예술적 정신을 청중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며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이다.
컨셉 및 주제	커티스 트리오는 이번 공연에서 멘델스존이 활동한 19세기의 클래식 음악적 양식과 정교한 작곡기법을 고려하여 음악적 표현을 극대화하여 연주하며 **피아노와 현악기의 환상적인 조화** 속에서 멘델스존의 음악적 풍부함과 심오한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내용 및 특징	실내악 레퍼토리 중 단연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멘델스존이 작곡한 피아노 트리오 2곡 모두를 연주할 예정이다. **1. Piano Trio No. 1 in d minor, Op. 49** 이 곡은 1839년에 작곡된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중 첫 번째 작품으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 **2. Piano Trio No. 2 in c minor, Op. 66** 이 곡은 멘델스존이 1845년에 작곡한 두 번째 피아노 트리오로, 그의 창의성과 감성이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이 곡들은 최고의 연주 난위도를 자랑하며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 수정 계획)** 필요에 따라 추가 곡이나 새로운 음악적 요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수정될 수 있다.
기대효과	**1. 전국에 클래식 실내악 음악의 대중화**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커티스 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한 클래식 실내악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2. 청중들에게 높은 문화적 만족감 제공** 클래식 음악의 경험은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높이고, 청중들에게 예술적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3. 낭만주의 대가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피아노 트리오 연주 경험** 멘델스존의 작품을 피아노 트리오로 체험함으로써 음악적인 이해도가 향상되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이 확장된다. **4. 지역 관중들의 감정적 공감 증대** 멘델스존의 음악은 감성적인 면모가 풍부하여, 청중들의 감정적 공감을 증대시키고 깊은 감정을 경험한다. **5. 시민들의 예술적 욕구 충족** 음악은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러한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예술적인 향유를 경험하고 풍부한 예술적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6. 우리나라 대표 클래식 진행자 장일범의 해설로 클래식 음악 교육의 효과 기대** 음악 공연은 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중들에게 음악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7.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통한 문화적 교류와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 공연은 사람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은 함께 감동을 공유하며 연대감을 형성한다. **8. 클래식 문화 예술 산업 활성화** 클래식 공연은 문화 예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공연을 통해 음악인과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9. 예술적 감상 증진** 클래식 공연을 통해 예술적 감상 능력을 증진시키고, 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더욱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클래식 11 알테무지크서울 : 베르사이유 궁전의 우아한 음악가들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알테무지크서울		
공연명	베르사이유 궁전의 우아한 음악가들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www.altemusikseoul.com
실무자명	강효정	E-mail	altemusikseoul@gmail.com
		연락처	(02) 597-2004
단체소개	"옛 음악"이라는 뜻의 독일어인 "알테 무지크"는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뜻하며 "알테 무지크 서울"은 옛 음악을 사랑하는 연주자들의 모임이다. 그 시대의 음악을 당시의 음악 언어로 되살림과 동시에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하여, 현재에 어우러질 수 있는 연주법과 작품을 연구하고 발굴하기 위해 2009 현재 음악감독인 강효정에 의해 창단되었다. 창단 이후 <서울문화재단>, <강원문화단>의 후원 연주회,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시리즈>, <대구 수성아트피아> 초청연주 등에서 뛰어난 연주력, 생동감 있고 유익한 해설이 함께 하는 음악회로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2015~2019년 <춘천 국제古음악제>에서 유럽의 저명한 연주자들과 바로크 음악의 향연을 펼치며 한국 바로크 음악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지역문화진흥원의 직장배달콘서트>, <한국문예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통해 전국의 문화사각지대에 행복한 바로크 음악의 에너지를 전했다. 2019년 창단 10주년을 맞으며 국내 최초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시대악기로 전하며 바로크 음악의 새로운 정의를 세웠으며, 옛 음악의 언어와 연주 관습을 철저히 연구하는 동시에 현대적 해석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새로운 진화를 꾀하였다.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는 현 시대에 옛 것과 새 것의 조화와 균형 안에서 청중과 함께 옛 음악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나누고자 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재)은평문화재단의 상주단체로 새롭게 출발하여 음악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나누며, 은은하고 평화로운 음악이 흐르는, 문화로 충만한 도시를 만드는데 동행하고 있다.		
공연 가능기간	☑ 7월(1~4주) ☑ 8월(1~4주) ☑ 9월(1~4주) ☑ 10월(1~4주) ☑ 11월(1~4주)		
공연실적	**<신청 공연 실적>** ㅇ 2023.11.16.(목)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후원) **<공연 단체 실적>** 1. 2023.08.24.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예당여름음악축제 2. 2022.06.16.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공연영상	https://youtu.be/ZBb-czRMokw		
참여인원	총 20명 (출연진 20명 / 스태프 5명)		
소요시간	총 90분 (인터미션 15분)	주관객층	취학 아동 이상,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r>
<tr><td rowspan="2">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td><td>객석규모</td><td>무대면적</td><td>무대시설</td></tr>
<tr><td>☐ 대극장(1,000석 이상)
☐ 중극장(500~1,000석 미만)
☑ 중극장(300~500석 미만)
☐ 소공연장(300석 미만)</td><td>무대너비(16400mm)×
높이(5050 m)
×깊이(8070mm)</td><td>보면대, 덧마루, 프로젝트 보유</td></tr>
<tr><td>기획 및
제작의도</td><td colspan="3">-이 시대의 가장 새로운 음악, 바로크 음악
21세기의 관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악으로 바로크 음악을 지목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음악의 매력이라 하면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하는 바로크 음악을 바로크 시대의 악기로 들을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작품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사하는 것이다.
-권력의 전유물에서 대중의 예술로
그 이름조차 잊혀졌던 베르사이유 궁전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권력의 전유물이었던 프랑스 절대 왕정의 음악을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td></tr>
<tr><td>컨셉 및 주제</td><td colspan="3">-음악으로 선사하는 베르사이유의 위대한 예술
프랑스 절대왕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베르사이유 궁전은 루이 14세 당대 가장 뛰어났던 예술가들이 모여 음악, 무용, 오페라, 연극 등을 활성화 시켰던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 문화는 왕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한편 프랑스 예술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그 위대한 건축물과 미술품은 베르사이유 궁전을 방문하면 누구나 감상할 수 있지만 그 안을 수놓았던 음악은 감상할 기회를 알테무지크서울의 연주로 선사할 것이다.
-과학혁명의 시대의 절대왕정의 프랑스 역사
과학과 문화 연구가 민태기의 해설 그리고 신지아의 바로크 댄스를 함께 선보이며 과학혁명의 시대 유럽의 정세와 베르사이유 궁전의 에티켓이었던 바로크 댄스를 감상하며 급속한 과학의 발전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왕정을 이룬 당대의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다.
-바로크 음악의 메세지
권력의 공간이었던베르사이유 궁전에서의 음악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우리에게 옛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며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예술의 근원이 되었다.
옛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음악을 구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살펴볼수 있으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음악을 통해 그 시대상을 알아보고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살펴보며 우리의 현재를 투영해 보는 시간, 이것이 알테무지크서울이 전하는 바로크 음악의 메시지입니다.</td></tr>
<tr><td>내용 및 특징</td><td colspan="3">*쟝 밥티스트 륄리(1632-1687)
서민귀족 모음곡 LWV 43
서곡-카나리 춤곡-두 번째 에르-투르크 의례에 의한 행진곡-어릿광대의 샤콘

*미쉘-리샤드 드 랄랑드 (1657-1726)
베르사이유 궁전의 분수 모음곡
서곡-안셀라드의 에르-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작은 심포니-꽃의 에르-샤콘

*쟝 프레이 르벨 (1666-1747)
댄스의 특징
서곡-쿠랑트-미뉴에트-부레-샤콘느-사라방드-지그-리가동-파스피에-가보트-소나타-루르-무제트-소나타

*쟝 필리프 라모(1683-1764)</td></tr>
</table>

구 분	내 용
	레 보레아드 모음곡 서곡-박트리아인들의 앙트레-콩트르단스-뮤즈의 앙트레=바람의 조곡-미뉴에트-콩트르당스 *편성 / 총 21명 / 지휘자 1명, 해설자 1명, 바로크댄서 1명 바로크바이올린 4명, 바로크비올라 2명, 바로크첼로 1명, 비올로네 1명, 쳄발로 1명, 테오르보 1명, 리코더 1명, 바로크 오보에 2명, 내츄럴 호른 2명, 바로크 바순1명, 타악기 2명 (공연 수정 계획) -2023년 공연에 없던 민태기 해설과 신지아 바로크 댄스 추가로 당대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 과학혁명의 시대의 절대왕정의 프랑스 역사 루이 14세는 베르사이유를 권력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예술과 과학을 결합했다. 천동설에 맞서 태양중심설을 앞세워 '태양왕'이 되었고, 중앙집권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대 과학으로 귀족을 누르고 절대 왕정의 시대를 열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르사이유에서 벌어진 바로크 혁명이 어떻게 동시대의 과학 혁명과 긴밀하게 호흡했는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민태기의 해설로 풀어나간다. 그리고 신지아의 바로크 댄스를 함께 선보이며 과학혁명의 시대 베르사이유 궁전의 에티켓이 어떻게 예술의 권력을 만들어갔는지 당대의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다. -쟝 프레이 르벨 (1666-1747) 댄스의 특징 추가 : 바로크 댄스를 소개
기대효과	**다양한 공연 콘텐츠 보급 및 새로운 공연의 향유기회 제공** 바로크 시대악기 연주가 사랑받는 현실이지만 바흐,헨델,비발디로 한정되어 있는 국내 바로크 음악계 에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관객들의 다양한 수요 만족 **클래식 음악계의 저변 확대** 클래식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며 다양한 연령층 확보 **다양한 협업 제시** 바로크 음악과 함께 댄스와의 결합으로 다양한 협업 제시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파급 효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연의 분산** 바로크 시대악기 연주의 전국 확산의 계기 마련 **지역 공연장의 전문성 강화** 연주 특성에 대한 지역 관객들의 이해도 증가 및 지역 공연 기획자의 전문성 강화